

목차 & 두 줄 요약



인슈어테크 20



해외

Allstate, AI 기반 고객 응대 시스템 도입으로 보험 서비스 혁신 20

Allstate는 AI 기반 이메일 응대를 도입해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응대 시간을 단축했으며 공감적 표현과 쉬운 용어 사용으로 고객 경험을 개선

Aon·SwissRe·Floodbase, 허리케인 피해 관련 지수형 보험 도입 21

Aon, Swiss Re, Floodbase는 허리케인 폭풍 해일 시 사전 설정된 수위 기준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보상이 지급되는 지수형 보험상품을 개발해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보상과 재정 안정성을 제공함

AXA Global Healthcare, 통합 헬스케어 플랫폼 출시 22

AXA Global Healthcare는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을 출시해 가상 상담, 보험 관리, 웰니스 모니터링을 통합 제공하고, 웨어러블 기기와 연동해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를 지원

기후위기 대응과 보험사의 역할 23

보험연구원 세미나에서 보험사가 친환경에너지 기술 개발에 대한 리스크 평가를 통해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코리안리는 기후리스크 평가 모델과 재보험 제공 등으로 기후리스크 대비를 지원



정책

보험산업 AI 혁신, 규제의 덩어리...생존 전략은 24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으로 과도한 규제가 보험업계의 AI 기반 혁신을 저해할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보험업계는 고영향 인공지능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AI 활용 전략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기업

캐롯손해보험, 데이터 기반 반려견 건강관리 서비스 출시 25

캐롯손해보험은 IoT 기기 '텔레팻'을 활용해 반려견의 행동 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하는 AI 기반 건강관리 서비스 '텔레파시'를 출시하는 등 반려동물 보험 상품 개발과 건강관리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

“노후 준비와 절세까지” KB라이프, 은퇴자산관리 서비스 시행 26

KB라이프는 아티웰스와 협력해 AI를 기반으로 은퇴 준비와 절세 전략을 지원하는 '은퇴자산관리 솔루션'을 출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재무 안정과 세금 부담 완화를 돕고 고객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

흥국화재·KB라이프생명, 자동심사 시스템 도입으로 보험 가입 프로세스 혁신 ... 27

흥국생명과 KB라이프생명은 선심사 시스템 도입을 통해 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자동심사율과 신계약 건수가 크게 증가해 심사 소요시간이 단축되고 보험 가입의 편의성이 향상

미래에셋생명·DB생명, AI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도입으로 건강관리 혁신 ... 28

미래에셋생명과 DB생명은 AI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도입해 건강 상태 분석, 맞춤형 정보 제공, 전문가 상담 등으로 고객의 건강 개선과 라이프케어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음



Allstate, AI 기반 고객 응대 시스템 도입으로 보험 서비스 혁신

- Allstate는 AI 기반 이메일 응대를 도입하여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에서 더 높은 공감 능력을 발휘하며 기존 인간 담당자보다 더 나은 고객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힘
 - Allstate의 보험 담당자 23,000명은 하루 50,000건 이상의 고객 응대를 진행하는데 AI를 도입한 후 응대 시간이 단축되고 고객 만족도가 향상됨
 - AI가 생성한 이메일은 전문 용어를 줄이고 명확한 문장을 사용하며 인간 담당자보다 더 친절하고 공감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경향을 보임
 - 기존에는 담당자들이 'UPP inventory list' 등 이해하기 어려운 보험 용어를 그대로 사용했지만, AI는 이를 'Unscheduled Personal Property inventory list'로 자동 변환하여 고객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함
 - * UPP(Unscheduled Personal Property) inventory list : 보험 계약에서 개별적으로 한도 등이 명시되지 않은 비특정 개인 자산
 - 또한, AI 기반 이메일 응대는 대화의 톤을 부드럽게 유지하며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고 고객 불만 사항을 인정하는 문구를 자연스럽게 추가하여 감정적 마찰을 줄이는 역할을 수행함
- Allstate를 포함한 보험업계는 AI를 활용하여 고객 서비스뿐만 아니라 리스크 평가, 보험료 책정, 청구 검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음
 - Allstate는 향후 AI를 이용한 리스크 평가 및 보상 절차 자동화까지 검토 중이며 AI를 단순 자동화 도구가 아니라 고객 경험을 향상시키는 전략적 요소로 활용해 고객 중심 기업으로 전환하고자 함
 - 또한, AI가 사진을 분석하여 차량 모델 및 손상 정도를 판별하는 기능을 연구 중
 - Nationwide는 AI를 통해 청구 데이터를 요약하고 담당자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AI를 활용하고 있으나, 고객 응대에서의 공감 전달은 여전히 인간 담당자가 우위에 있다고 평가함



Aon·SwissRe·Floodbase, 허리케인 피해 관련 지수형 보험 도입

- Aon, Swiss Re, Floodbase가 협력하여 허리케인 폭풍 해일로 인한 재정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기존 보험의 보장 한계를 보완한 새로운 지수형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있음
 - 전통적인 보험 상품은 높은 공제금과 특정 손해에 대한 보장 제외 조항이 많아 폭풍 해일로 인한 피해를 충분히 보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음
 - Aon의 2025년 기후 및 재해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발생한 허리케인 헬렌은 약 750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했으며 특히 플로리다 Big Bend 지역에서 이로 인한 15피트 이상의 폭풍 해일*이 발생
 - * 폭풍해일은 허리케인, 태풍, 폭풍, 열대성 저기압 등의 기압차로 인해 해안 해수면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말함
 - 보험사는 375억 달러 규모의 보험금 청구를 처리했으며 이 중 3분의 1 이상이 폭풍 해일로 인한 피해였음
- 지수형 보험 모델을 활용하면 물리적 손상 평가가 아닌 사전 설정된 수위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피해 보상을 보다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음
 - 기존의 보험 방식과 달리 지수형 보험은 물리적 피해 감정을 거치지 않고 사전에 설정한 특정 수위 기준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보상이 지급되는 구조로 설계됨
 - 정책 가입자는 특정 수위에 대한 보장 한도를 선택할 수 있으며 폭풍 해일의 높이에 따라 미리 정해진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어 보상 속도가 빨라지고 재정 안정성이 높아짐
 - 이 모델은 기존 재산 보험과 결합하여 보다 포괄적인 보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단독 보험 상품으로 운영될 수도 있음
- 글로벌 보험사들은 점점 증가하는 기후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매개변수 보험 상품을 강화하고 있으며, 신속한 보상 및 유연한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공하고 있음
 - Aon은 이번 협력을 통해 고객들이 기존 보험 상품과 함께 매개변수 보험을 활용하여 보다 종합적인 재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Swiss Re는 매개변수 보험이 자연재해로 인한 재정적 손실을 빠르게 보상할 수 있는 투명하고 유연한 방식이라며 기업들이 개별 리스크 관리 전략에 맞춰 가입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강조함
 - Floodbase는 허리케인 피해가 점점 증가하는 가운데 맞춤형 보험 상품을 제공하기 위한 이번 협력으로 미국 해안 지역 기업들이 폭풍 해일 위험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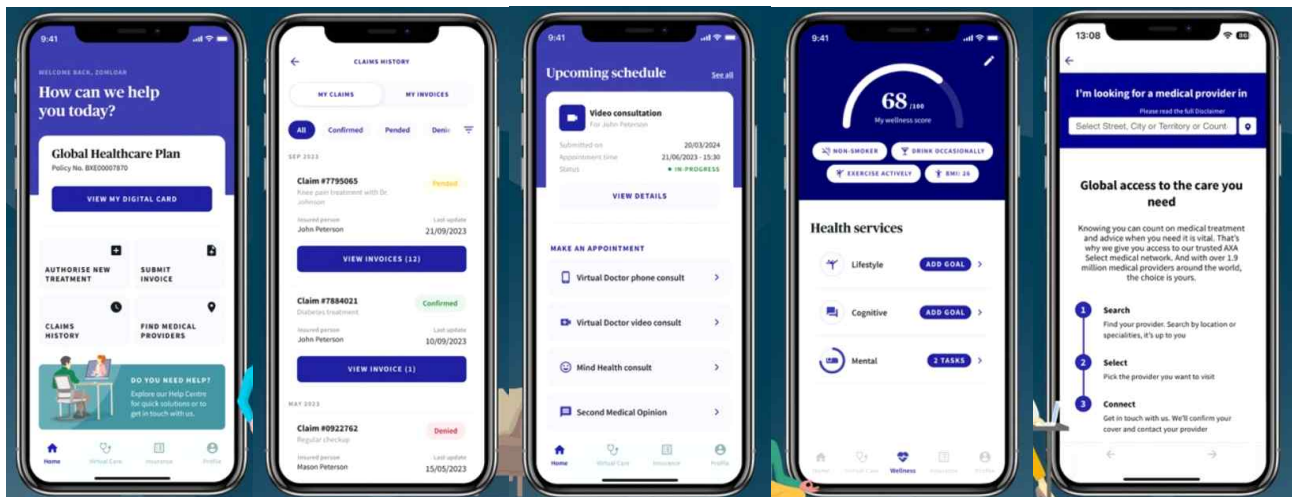
출처 : Reinsurance News(2025.02.05.) Aon, Swiss Re, and Floodbase reveal parametric insurance solution to mitigate hurricane storm surge losses



AXA Global Healthcare, 통합 헬스케어 플랫폼 출시

- 프랑스의 AXA 그룹 국제 의료보험 사업부인 AXA Global Healthcare가 보험 서비스와 건강 관리 기능을 결합한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을 공개
 - 2024년 12월 출시된 이 플랫폼은 가상 상담, 보험 관리, 웰니스 모니터링 기능을 하나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통합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높임

<AXA Global Healthcare의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인슈어테크

- 보험 증권 열람, 보험금 청구, 비대면 의료 상담을 포함하는 이 시스템은 190만 명의 의료 서비스 제공자와 연결되어 있어 사용자들은 지역, 의료 분야, 건강 상태에 따라 의료 기관을 검색할 수 있음
- 또한, 이 플랫폼에는 정신 건강 상담 기능이 포함되어 있고 회원당 연간 6회의 화상 또는 전화 심리 상담이 제공되며 두 번째 의료 의견을 제공하는 50,000명의 의료 전문가 네트워크도 지원됨
- AXA는 플랫폼과 연동된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보험 서비스를 단순한 보장 수단에서 예방적 헬스케어 서비스 중심으로 확장
 - 웨어러블 기기와의 연동을 통해 신체 활동 모니터링, 영양 데이터 분석 기능을 제공하며 사용자들은 개인별로 맞춤형 목표를 설정하고 진행 상황을 추적할 수 있음
 - 또한, 스트레스 관리, 수면 개선, 정신건강 개선을 지원하는 콘텐츠를 제공하며 사용자들이 건강 상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움
- AXA Global Healthcare는 통합 헬스케어 플랫폼을 통해 보험과 의료 서비스의 융합을 가속화하고 있는 등 글로벌 헬스케어 및 웰빙 시장에서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고 있음
 - 이 플랫폼은 2024년 12월 첫 출시 이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확장될 예정이며 현재 영어 및 프랑스어로 서비스되고 있고 추가 언어가 지속적으로 추가될 계획

출처 : InsurTech(2025.01.06.) AXA Global Healthcare Launches Integrated Health Platform



기후위기 대응과 보험사의 역할

- 보험연구원이 1월 16일 개최한 ‘기후위기 대응’ 관련 국제 세미나에서 보험사들이 친환경 에너지 기술 개발 초기 단계에서 리스크를 평가해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 제네바 국제보험경제연구협회는 기술 상용화 이전 단계에서 보험사가 리스크 평가를 수행하면 초기 투자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기술 개발 단계에서 기후 관련 리스크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면 상용화 이후 필요한 보험을 확보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
 - 국제 에너지 기구(IEA)는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2050년까지 매년 4조7,000억 달러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기술 개발 초기 단계에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함
 - 따라서 기후 기술 개발 초기 단계에서는 높은 비용이 수반되므로 투자자들이 기술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보험사가 기후 관련 리스크를 평가하면서 관련 투자를 촉진하도록 하는 역할이 필요
- 코리안리는 기후리스크 평가 모델을 언급하며 이를 통해 재난 손실 규모 예측 및 리스크 분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재보험 제공을 통해 금융 안정성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함
 - CAT(Catastrophe) 모델은 태풍, 지진 등의 대재해 발생 가능성과 손실 규모를 예측하는 도구로, 기상정보, 지형정보, 건물정보 등 빅데이터를 분석해 기후리스크에 따른 재무적 영향 데이터를 산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보험 언더라이팅 및 포트폴리오 관리를 수행하는 데 활용됨
 - 또한, 코리안리는 농작물재해보험과 같은 주요 정책성 보험에 재보험을 제공하여 기후 관련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탈석탄 금융을 선언하고 2050년까지 석탄 관련 보험 포트폴리오 비중을 94% 이상 감축할 계획
 - 그 외에도 기후리스크 분석 고도화를 위해 학계 및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기후리스크 시나리오 분석 및 스트레스 테스트를 수행하고 있음

인슈어테크



<기후위기 대응 관련 세미나 사진>



- 이와 같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보험업계의 적극적인 역할이 강조되며 리스크 평가 및 재보험 제공을 통해 기후 기술 투자와 금융 안정성을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

출처 : 쿠키뉴스(2025.01.16.) “기후위기 막을 기술 투자 촉진…보험사 나서야”
 이데일리(2025.01.17.) 원종규 코리안리 사장 “재난손실 예측해 재무안정 ↑, 재보험 제공”



보험산업 AI 혁신, 규제의 덩어리...생존 전략은

- 최근 인공지능 기술이 보험업계에 혁신을 가져오는 가운데 1월 제정된 ‘인공지능 기본법’에 대한 보험업계의 AI 활용 전략 재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됨
 - 인공지능 기본법의 제정은 AI 기술이 초래할 수 있는 윤리적,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데, 특히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가 보험산업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임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 사람의 생명·신체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AI 시스템을 의미하며 AI 기본법에서는 ‘채용, 대출심사 등 개인의 권리·의무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판단이나 평가에 AI를 활용하는 경우’를 말함
 - 보험산업에서는 보험계약 인수심사 및 보험금 지급심사 과정에서 AI를 활용하는데 이는 대출심사와 유사한 성격을 가져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음
 - AI를 활용하는 보험사들은 사전 고지 의무,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위험관리 방안 수립 등의 의무를 부담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 및 과태료 부과 가능
- 보험사들은 법률 및 하위 규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AI 기본법의 세부 시행령과 가이드라인 개정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관련 기관의 규제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함
 - 보험사는 AI 활용에 따른 리스크를 평가하고 위험관리 시스템을 강화해야 하며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는 보험 심사 및 지급 프로세스를 면밀히 분석해 이에 대한 신뢰성 및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야 함
 - 또 AI 의사결정의 해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설명가능한 AI’ 기술을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함
 - 보험사 내부에서는 내부 감시 및 검토 체계를 강화하며 AI 활용에 대한 내부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직원 교육을 통해 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는 등 규제 준수를 위한 AI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며 AI 기반 심사 및 지급 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를 방지해야 함
- 한편, AI 기본법의 포괄적 규제가 과잉 및 중복 규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음
 - 현재 우리나라에는 AI 기본법 외에도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 ▲개인정보보호법의 자동화된 결정 규제 ▲신용정보법의 자동화 평가 규제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 중인 ‘인공지능 이용자 보호법’ 등이 병립하고 있음
 - 이로 인해 보험업계가 4중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AI 기반 혁신을 저해할 수 있음



출처 : 보험저널(2025.02.16.) 보험산업 AI 혁신, 규제의 덩어리...생존 전략은



캐롯손해보험, 데이터 기반 반려견 건강관리 서비스 출시

- 캐롯손해보험이 IoT 기술을 활용하여 행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반려동물 맞춤형 건강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반려견 건강관리 서비스 ‘텔레파시(telepodsee)’를 출시

<캐롯손해보험의 ‘텔레파시’>



스마트하게 관리하는 반려동물의 일상

반려견 건강관리 서비스

텔레파시 출시



- 캐롯손해보험은 자체 개발한 IoT 기기 ‘텔레팟(telepod)’을 활용하여 반려견의 행동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AI 기반 분석을 통해 맞춤형 건강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도입
 - ‘텔레파시’ 서비스는 반려견의 활동량, 수면 패턴, 산책 기록, 이상 징후 등을 분석하며 홈캠 없이도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해 반려인의 외출 중에도 반려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음
 - AI 기술을 활용하여 반려견의 감정 상태와 건강 상태를 분석하며 이상 행동이 감지될 경우 보호자에게 알림을 제공하는 기능을 통해 반려인의 반려견 건강관리를 지원함
 - 또한, 반려견 데이터 분석 역량 강화를 위해 AI 스타트업 펌킨컴퍼니와 협력하고 있으며, 카이스트 전산학부 전문가의 기술 자문을 받아 서비스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음
- 캐롯손보는 디지털 보험사로서 데이터 분석 및 AI 기술을 기반으로 반려동물 관련 신규 보험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반려견 건강관리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예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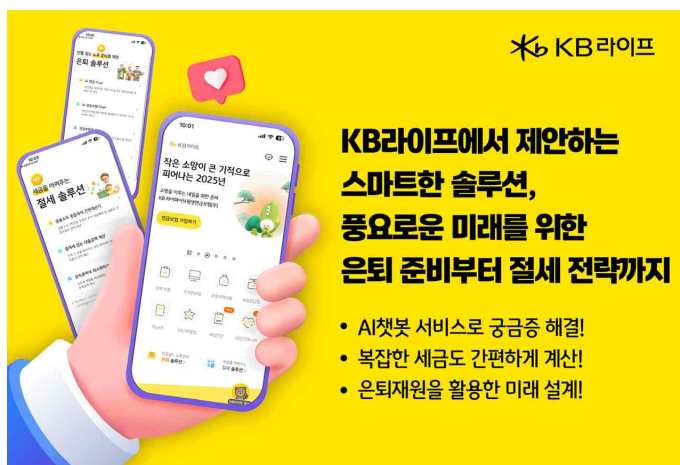
출처 : 보험매일(2025.01.23.) 캐롯손보, 데이터 기반 반려견 건강관리 서비스 출시



“노후 준비와 절세까지” KB라이프, 은퇴자산관리 서비스 시행

- KB라이프는 고객들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산관리 서비스 알고리즘 개발 기업 ‘아티웰스’와 협력해 ‘은퇴자산관리 솔루션’을 출시
 - 이번 솔루션은 고객들이 노후 준비와 절세 전략을 손쉽게 세울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은퇴 솔루션’과 ‘절세 솔루션’으로 구성

<kb라이프생명의 ‘은퇴자산관리 솔루션’>



- ‘은퇴 솔루션’은 은퇴 이후 고객의 재무적 안정을 돕는 서비스
 - AI 챗봇을 통해 연금 및 건강보험 관련 정보를 대화형으로 제공하고, 특히 해당 서비스를 통해 퇴직을 앞둔 직장인들은 지역가입자로 전환 후 예상되는 건강보험료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음
- ‘절세 솔루션’은 고객이 실생활에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 절세 솔루션에 포함된 ‘금융소득 종합과세 간편계산기’는 복잡한 세금 계산 과정을 간소화해 금융소득세를 효과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제시하며,
 - ‘증여세 없는 대출금액 계산 서비스’를 통해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초개인화 맞춤형 절세도 지원
- KB라이프 측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고객들의 은퇴 이후 재무계획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KB라이프는 AI플랫폼 기반 자산관리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고객들이 풍요로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함

출처 : 헤럴드경제(2025.01.15.) “노후 준비와 절세까지 한 번에” KB라이프, 은퇴자산관리 서비스 시행



흥국화재·KB라이프생명, 자동심사 시스템 도입으로 보험 가입 프로세스 혁신

- 흥국생명은 '24년 11월 도입한 '선심사 시스템'을 통해 지난 3개월간 신계약건수가 증가하고 자동심사율이 개선되는 등의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힘
 - 흥국생명은 2023년 11월 생명보험업계 최초로 전 상품과 영업 채널에 선심사 시스템을 도입하여 보험 설계 단계에서 가입 가능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도입 후 3개월간 신계약 건수가 직전 3개월 대비 19% 증가하였으며 자동심사율이 53%에서 84%로 상승하여 고객이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됨
 - 기존에는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데 평균 2.7일이 걸렸으나 도입 이후 당일 회신이 가능해지고 승인 여부 확인 시간도 평균 3분으로 단축됨

<흥국생명의 선심사 시스템>



- KB라이프생명은 'K-Manager(K-매니저)' 사전심사 시스템을 도입하여 자동심사 비율을 85% 이상으로 확대하고 보험 가입 과정을 최적화하며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함
 - K-매니저는 고객이 주계약 상품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질병 사전고지 완료 후 즉시 심사 결과를 제공하는 기능을 탑재함
 - 이 시스템 도입을 통해 자동심사 비율은 기존 55%에서 85% 이상으로 확대되었으며 1만4,000건의 질병분류코드와 20만 개의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심사 기준의 정밀도를 높임
 - 또한, 심사 소요시간이 기존 7일에서 24시간으로 단축되었으며 가입이 어려운 경우 즉시 대안 상품을 추천하는 기능을 통해 고객의 선택 기회를 확대함

출처 : 메트로신문(2025.01.20.) [보험브리핑]흥국화재·미래에셋생명·KB라이프
전자신문(2025.02.10.) 흥국생명, '디지털 혁신' 효과...선심사 시스템 도입 후 신계약 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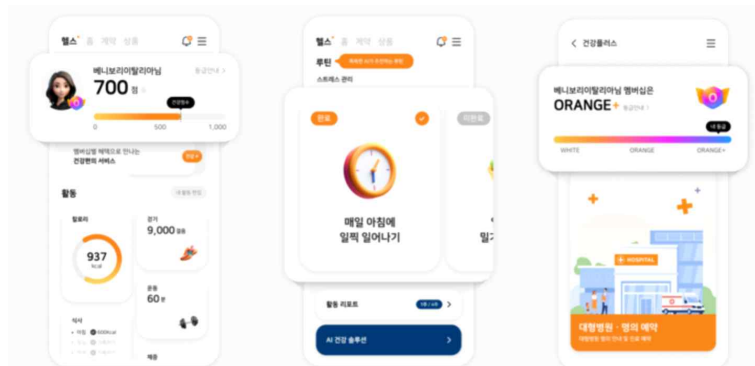




미래에셋생명·DB생명, AI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도입으로 건강관리 혁신

- 미래에셋생명은 ‘엠라이프(M-LIFE)’ 앱에 AI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도입하여 건강검진 이력, 병원 및 약국 이용 기록, 설문 결과 등을 분석하고 개인별 건강 목표 및 활동 루틴을 제안하는 등 고객 맞춤형 건강관리 기능을 제공하고 있음
 - 해당 서비스는 ▲AI 건강 솔루션 ▲건강 기록 ▲건강 플러스로 구성되며 ‘AI 건강 솔루션’은 건강검진 이력, 병원 및 약국, 설문 결과 등을 분석해 건강 목표와 활동 루틴을 제안
 - ‘건강 기록’ 기능을 통해 식사, 운동, 체중 등의 데이터를 입력하면 맞춤형 건강 관리 팁과 주간 활동 리포트를 제공하여 체계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함
 - ‘건강 플러스’ 서비스는 전문 의료진 상담, 건강검진 우대, 대형 병원 예약 대행 등의 의료 편의 기능을 지원하며 서비스 등급에 따라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함
 - 미래에셋생명 측은 “미래에셋생명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는 AI와 데이터를 활용한 똑똑한 헬스케어 서비스로 고객의 건강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힘

<엠라이프 앱>



- DB생명은 헬스케어 플랫폼 기업 디에이블과 협력하여 AI 건강 체크 서비스를 도입하고 고객의 건강 상태 분석 및 맞춤형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
 - DB생명 다이렉트 홈페이지에서 자가진단 설문을 통해 가임체력, 당뇨, 치매 조기 증상 등을 점검할 수 있으며 AI 기반 건강 분석을 통해 맞춤형 건강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음
 - 보다 심층적인 건강 상담이 필요한 고객을 위해 응급의학·간호학과 자문 의사 및 보건의료학 교수 등의 전문가 상담 기능도 제공
 - DB생명 측은 “디에이블과의 협력으로 고객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돼 기쁘다”라며 “이번 서비스 오픈을 통해 라이프케어 서비스를 본격화하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혁신적인 서비스를 선보여 나가겠다”고 전함

출처 : 메트로신문(2025.01.20.) [보험브리핑]흥국화재·미래에셋생명·KB라이프

전자신문(2025.02.10.) 흥국생명, '디지털 혁신' 효과...선심사 시스템 도입 후 신계약 늘었다

